

- 우리잡지는 지난 9월9일 ○
- 科學研究會에서 第67回 發明 ○
- 勳章을 授與한다. 每月 둘째 ○
- 土曜日 午後 1時에 開演하는 ○
- 發明展은 아침에도 2백여 ○
- 명이 出席하여 盛況을 이루 ○
- 었다. 이날 科學研究會에서는 ○
- 제이스엔지니어링사 金宗世 ○



가변착화 배전기 發明人

제이스엔지니어링사 金宗世 사장

「가변착화 배전기」로 '86全國優秀發明展에서 金賞과 '86西獨國際發明展에서 銀賞을 수상한 제이스엔지니어링사 대표 金宗世 사장은 國內는 물론 美國, 西獨, 英國, 日本 등 4개 선진국에서 特許를 받은 국내유일의 엔진분야 國際發明 特許所有者로서 '86年末 싱가포르에 시험수출한 여세를 몰아, 美國, 대만에 고정적 물량을 확보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 日本과도 상담이 진행중이다.

대방동에 제이스엔지니어링사를 설립한 金사장은 「가변착화 배전기」의 발명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여, 국내 자동차가 자동차의 본거지인 美國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엔진 등 핵심 기술은 거의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엔진 연소이론을 연구하여 이 제품을 開發하게 됐습니다.』

전기공학도 출신인 金사장은 엔지니어로서의 사명감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제품을 완성하고 特許를 획득하기까진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金사장은 日本 도요다자동차와 6년간의 特許전쟁을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수출국에서 전자터보시스템, 컴퓨터점화기 등으로 불리

는 이 가변착화 배전기는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1단점화장치와 2단점화구조로 바뀌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복잡한 과정없이도 부착하기만 하면 더 강력한 힘을 내는 이 가변착화배전기는 개당 8만8천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물량이 팔릴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86년부터 본격적인 기업화에 들어갔다는 金사장은 수출에 이어 국내의 대량시판도 곧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發明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분야 기술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발명기업인으로서의 겸허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